월요광장

아시아문화전당의 창의적 운영을 기대하며…

이 승 권
조선대 아시아문화교류사업단장

정부는 10여 년의 대장정을 마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2015년 9월 4일에 개관한다고 발표했다. 전당의 개관일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감회가 새롭다. 그동안의 경위야 어쨌든 전당은 문화도시 광주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창의적 미래 문화의 산실로 거듭나야 한다. 이제는 시민과 전문가, 정부와 지자체가 전당의 미래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시아문화전당이 아시아문화의 허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2013년 개관한 유럽·지중해 문명박물관(MuCEM : Museum of the Civilizations of Europe and the Mediterranean)의 사례를 참고해서 전당에 대한 기대를 피력하고자 한다.

지난 2000년,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프랑스는 마르세이유에 국립박물관을 세우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2008년, 마르세이유는 유럽연합으로부터 '2013 유럽문화수도'로 지정을 받았다. 2013년 완공된 MuCEM(뮈쎔)은 '마르세이유-프로방스 2013 유럽문화수도' 행사의 무대가 되었고, 마르세이유는 프로방스의 여러 도시들을 참여시켜 '2013 유럽문화수도' 행사를 지역축제로 승화시켰다.

프랑스는 미래형 국립 문화기관을 왜 마르세이유에 세우기로 했을까? 역사적으로 마르세이유는 아프리카와 유럽 문화가 교차하는 공간이었다. 마르세이유는 BC 600년 그리스 식민지였던 포카에아(Phocaea, 오늘날 터키의 Foca) 사람들이 세운 도시로 지중해 최대의 무역항이다. 마르세이유를 둘러싼 프로방스는 로마의 속주에 편입되었던 곳으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최상의 생태공간이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프로방스를 배경으로 성장한 마르세이유는 지중해 문명의 꽃이었다. 역사의 부침 속에서 지중해·유럽 문명의 허브가 되고자 하는 프랑스의 꿈이 마르세이유에서 재현된 것이다. 따라서 프랑스가 마르세이유에 MuCEM을 개관한 것은 매우 전략적 선택이었다.

프랑스의 의도는 MuCEM의 전시에서도 드러난다. MuCEM의 전시 주제는 유럽과 지중해 문화권의 소통, 인간과 자연의 교류 및 공존, 도시 문화의 다양성 등을 중심으로 선정되었다. MuCEM의 장소성도 주제 선정의 중요한 고려 대상이었다. MuCEM이 들어선 지역은 처음으로 도시가 건설된 곳이었고 12세기에는 성 요한(Saint Jean) 교회가 세워진 곳이었다.

사회 문화적으로는 프랑스가 세계와 교류하는 주요 통로였다.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유대인들이 새로운 삶을 찾아 신세계로 떠난 회한의 장소였다.

이처럼 도시의 역사적 사실과 기억이 간직된 곳에 21세기형 문화기관이 들어선 것이다. 마르세이유는 MuCEM의 건설을 도시 발전의 전기로 삼았고, 유럽문화수도로 지정받아 도시 발전을 가속화시켰다. 프랑스와 마르세이유는 인문적 문화공간의 복원을 통해서 상상력을 자극하는 미래의 문화도시 모델을 만들고자 했다.

따라서 21세기형 문화기관인 MuCEM은 외부 세계와 소통하는 공간이며 집단 지성의 산실이다. MuCEM은 정답을 제시하기 보다는 대중의 의견을 통섭하는 창의적 공간이다. 한 마디로, MuCEM은 단순한 문화기관을 넘어 거대한 문화도시(Cite culturelle)라고 할 수 있다.

퍼스(Peirce)의 용어를 빌리자면, 끊임없이 기호를 양산하는 해석체를 제공하는 창조 공간인 셈이다. 이러한 사례는 '세계를 향한 아시아문화의 창'을 지향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추구해야 할 지향점을 보여주는 것 같다.

아시아문화의 허브를 추구하는 아시아문화전당이 MuCEM의 사례에서 벤치마킹해야 할 것은 분명하다. 아시아와 한국, 아시아와 세계의 교류를 통해서 아시아인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전당은 아시아를 둘러싼 문명사의 궤적들과 도시와 문명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이 교류하는 아시아인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시아 문화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다양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말하게 하고, 그들의 생각을 공유해야 한다.

광주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진정으로 아시아 문화도시의 허브가 되고자 한다면 '지역성을 기반으로 아시아와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MuCEM의 전략적 선택이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법조칼럼

영화 '명량'

강 성 두
법무법인 이우스 변호사

예외는 있겠지만 지난주까지 대부분은 휴가를 보내셨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오랜만에 큰 맘을 먹고 외국으로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사정상 아주 짧은 시간만을 쉬신 분들도 계실겁니다. 하지만 무더운 여름철에 비용대비 영화관만큼 좋은 피서지도 없을 듯합니다. 지금 극장가에서는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명량해전을 다룬 '명량'이라는 영화가 아주 뜨겁습니다(이 영화는 지금 개봉한지 12일 만에 관람 관객수가 1000만명을 넘었습니다).

영화 '명량'은 1597년 명량 울돌목에서 단 12척의 배로 330척에 달하는 왜의 수군을 격파한 세계 해전사에 빛나는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전투를 그리고 있습니다(실제는 133척이였다는 등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명량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수치상 압도적으로 우세한 일본 수군을 이길 수 있었던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리상 물길이나 지형 등을 잘 알고 있어 유리한 곳에 미리 자리를 잡고 있을 수 있었던 이점이 있었다는 것, 조선 수군의 판옥선이 물길이 빠른 곳에서 더욱 큰 위력을 발휘했다는 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명량해전의 승리는 이순신이라는 걸출한 지휘관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시 조선수군은 칠천량에서 일본 수군에 대패하여 전투선 대부분을 잃고 제해권을 거의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선조는 전력이 크게 약화된 수군을 폐지하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이때 이순신은 선조에게 다음과 같은 유명한 장계를 올립니다. "지금 신에게는 아직도 전선 12척이 남아 있나이다. 죽을 힘을 다하여 막아 싸운다면 능히 대적할 수 있사옵니다. 비록 전선의 수는 적지만 신이 죽지 않은 한 적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가정이나 회사처럼 크고 작은 조직은 물론 국가에 이르기까지 지휘관 즉 수장의 역할이 중요함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근한 예를 들면 이번 브라질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졸전을 한 것은 '소속팀에서 꾸준히 활약하며 경기감각을 유지하는 선수'를 뽑겠다는 감독 자신이 세운 원칙을 스스로 깨뜨린 무원칙한 선수선발과 기용이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왜 지금 10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영화에 열광할까요? 사실 몇몇 전문가들은 '전체적인 영화의 구성이나 고증은 그렇게 좋은 점수를 주기 힘들다'는 의견입니다. 관객들과는 사뭇 다른 견해입니다. 그럼에도 관객들이 '명량'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 풍전등화의 나라를 구하고자 하였던, 부하들에 앞서 전투에 뛰어들었던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였던 진정한 책임있는 지휘관에 대한 향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순신이라는 걸출한 지휘관이 일본 수군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한 그 바다로부터 멀지 않는 곳에서 많은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바다는 똑같은데도 400여년이 지난 지금에는 그 일에 책임을 지는 지휘관이 없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절차와 과정도 순탄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화 '명량'을 보면서 어차피 현실에서 기대할 수 없는 충무공과 같은 지휘관을 꿈꾸고 소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답답하지만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제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외에 일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겠습니까?

기 고

자사고 논란, 학생이 먼저다

이 승 훈
송원고 1학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논란의 중심에 있는 광주 송원고 1학년 학생입니다.

학생들은 진보 성향이 무엇이고 보수 성향이 무엇인지 사전적인 의미 이외에 깊이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왜 자사고가 폐지 논란에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단지 저희들에게 분명한 것은 어른들의 말을 믿고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히 학교 생활에 임하였을 뿐인데 다니던 학교가 갑자기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될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학생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얼마전 세월호 사고로 수 백명의 학생들을 잃고,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눈물 짓던 어른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른들은 저희를 지켜주는 대신 오히려 혼란과 불안 속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무 잘못도 없이 그저 자사고 학생이란 이유만으로 뭔가 죄를 지은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하지만, 가장 큰 피해자이자인 자사고 재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저희의 의견이나 입장은 아무도 들으려 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폐지 논란만으로도 이미 상처와 피해를 입고 있는 재학생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는 무책임한 말씀만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저희는 스스로의 진로에 대한 오랜 고민과 생각 끝에 자율적으로 자사고를 선택한 학생들입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학교를 갑자기 일반고로 전환시키며 일방적으로 따르라고 하는 것은 학생의 자율 의지를 무시하는 어른들의 폭력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작년 수험생들이 수능 A형·B형이 갑자기 생겼다가 사라지면서 피해를 본, 근래 10년간 가장 운이 나쁜 수험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12년간의 노력의 결과가 실력이 아닌 운에 따라 바뀌는 것을 보면서 저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항상 잘못된 교육정책을 만들어 온 것은 어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늘 학생들이었고, 결국 피해를 보는 것도 학생들입니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가장 운 나쁜 '자사고 실험용 세대'로 남을 차례일까요? 후배들은 또 저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희는 어른들의 논리는 잘 모릅니다. 저희는 보수세력도 아닙니다. 진보세력도 아닙니다. 그저 어른들의 말을 의심없이 믿고 따르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자사고 학생들이 어른들의 무책임으로 인한 또 하나의 희생양이 되지않게 해주십시오. 제발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공부만으로도 버거운 학생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을 주지 말아주십시오. 더 이상 저희 학생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희생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자사고 학생들은 대한민국의 학생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농기계 교통사고 보험 가입 지원 서둘러야

우리나라 인구 10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0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8명보다 월등히 많다. 그 중에서도 유독 농축어업 종사 비율이 높은 광주·전남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다.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률은 일반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7배나 높다고 한다. 농기계 교통사고는 났다하면 치명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08년부터 5년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했더니 농기계 운전자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10.6%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률(1.5%)보다 7배 높았다. 주로 노인들이 새벽이나 늦은 저녁 시간대 농기계를 모는데다 안전벨트 등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다는 점도 사망률이 높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농기계 교통사고 보험가입률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험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08년부터 5년 동안 등록된 농기계 대수는 10% 줄었는데 1만대 당 사망자수는 오히려 28%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차량대수(농기계 포함)는 10.8% 증가했지만 1만대 당 사망자가 17.1%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부는 농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농기계보험 가입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농기계보험을 의무보험으로 바꾸면 영세농 등 농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을 우려해서라고 한다. 또 농기계 관리나 농민 안전 등을 감안해 농기계 등록제도를 시행하려 했지만 농민들의 반발로 추진되지 못한 상황이어서 농기계 등록제가 전제돼야 하는 농기계보험 의무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농기계 운전자들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도로주행이 잦은 경운기나 콤바인 등이라도 보험가입률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쌀 수입 전면개방과 한중 FTA 체결 추진 등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농민들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김종선·광주시 광산구 운수동

社 說

호남경제 살리기, 질 좋은 일자리가 관건

호남(광주·전남·북)의 취약한 경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여기에 일자리의 양과 질마저 빈약해 정부와 자치단체의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대한민국 지역별 일자리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는 호남 경제의 암울한 실태를 여실하게 보여준다. 높은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안정적 직종은 감소하는 반면, 생계형 자영업은 늘어 지역민의 열악한 생활을 대변한다.

2012년 전국 사업체(360만2476개)의 비중 폭을 보면 서울(21.68%), 경기(20.85%)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3.78%)과 전남(3.69%), 광주(2.94%) 등은 합쳐봐야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기업이 극소수에 불과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일자리 질이 낮다는 점이다. 임금이 높은 금융보험, 방송통신정보, 전문과학기술 업종 등은 수도권이 사업체·종사자 비중에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각각 평균 2.6%(48.7%→51.3%)와 2.0%(56.9%→58.9%)나 높아졌다. 이에 반해 호남권은 각각 0.6% 줄었다. 전남·북은 자영업자의 비중이 각각 23.7%(2012년 기준)와 23.6%로 전국에서 4, 5번째로 높았다. 광주 역시 20.8%로 전국 평균(20.0%)을 넘어섰다. 그날그날 먹고살기에 급급하다는 얘기다.

일자리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가 고부가가치산업이 취약지역에 집중 투자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특히 광주·전남·북은 중국과 가깝고 무안공항, 광양 컨테이너부두, 새만금항을 갖추고 있어 이에 걸맞은 신산업 투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광주·전남 지자체도 분발해야 한다. 보여주기식이 아닌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로 탄탄한 기틀을 만들어야만 지역경제 균형을 꾀할 수 있는 것이다.

해수욕장 해파리 피해에도 대책이 없다니

연일 30도를 웃도는 무더위와 함께 바닷물 온도 상승으로 독성 해파리떼가 대거 출현해 피서객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전남지역 각 자치단체들이 해수욕장 개장 이후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면서도 정작 피서객 안전대책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개장한 전남 도내 65개 해수욕장 중 해파리로부터 물놀이객을 보호하기 위한 차단망이 설치된 해수욕장은 한 곳도 없다고 한다. 해경이 '해수욕장 안전관리 매뉴얼'에 응급 대처법을 적시하고, 피해 발생시 응급조치를 하는 게 고작이다.

해파리 피해가 크게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지난달 27일 무안군 톱머리해수욕장에서 진모(18)양 등 2명이 물놀이 중 해파리에 쏘여 치료를 받았고 28일에도 보성 율포해수욕장에서 박모(14)군이 해파리에 물려 응급치료를 받았다.

현재 서남해 해안 일대는 강독성 노무라입깃해파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독성이 강한 해파리에 쏘일 경우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들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던 8세 여자 어린이가 해파리에 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4시간30분 만에 숨졌다.

또 상당수의 해수욕장에는 수상구조 장비나 구조인력 등이 미흡해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들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안전대책조차 세우지 않고 있다.

가뜩이나 세월호 참사 및 태풍 여파로 관광객이 감소한 상황에서 지자체의 안전 무신경은 관광객들의 외면만 자초할 뿐이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해수욕장을 피서객들이 찾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말로만 "전남 해변으로 놀러오라"는 전시성 홍보에 열을 올릴 게 아니라 안전시설부터 먼저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에볼라 바이러스

지난 2003년 4월에 취재 차 싱가포르-홍콩-선전-샤먼-상하이로 이어지는 11박12일 출장을 떠날 무렵, 중국 광동성과 홍콩 등지에서 낯선 병이 번졌다. 출국할 때 정체불명의 병인 '괴질'(怪疾)로 불리던 것이 어느새 '사스'(SARS=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불렸다.

첫 행선지인 싱가포르와 달리 다음 목적지인 홍콩은 상황이 제법 심각해 보였다. 눈에 띄는 모든 남녀노소가 마스크를 하고 있었고, 인터뷰 때에도 예의상 서로 마스크를 쓴 채로 진행했다.

TV에서는 어느 아파트 한 동이 통째로 감염됐다는 등 사스 관련 뉴스가 연일 쏟아져 이러다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호텔 객실로 올라가면서 북적거리는 엘리베이터 내 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아예 수십 초간 숨을 참기도 했다.

사스 감염의 우려 속에서 유일한 희망은 얇은 마스크 한 장뿐이었고, 상하이 한인식당에서 맛보는 마늘 한쪽과 김치 한 가닥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정작 귀국 때에는 발원한 현지보다도 국내의 경계심이 지나칠 정도여서 당황스러웠다. 행여 감염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복기 동안 집에서 외부인과 접촉을 끊고 '자발적으로' 칩거하다시피 해야 했다. 결국은 아무런 일도 없이 지나갔지만 정확한 정보 없이 유행병을 대하는 주변의 '과민반응'은 씁쓸하기만 했다.

최근 서부 아프리카 기니에서 발병한 '에볼라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지며 전세계에 비상이 걸렸다. 워낙 전염성이 강한데다 치료약도 마땅치 않아 이 병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이 번지고 있다.

중세를 암흑기로 만든 페스트(흑사병)는 곰쥐 몸에 기생하는 벼룩에 의해 전파됐고, 사스의 원인은 사향 고양이로부터 유래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에볼라 바이러스는 '과일 박쥐'가 매개동물로 의심되고 있다.

인류의 역사는 페스트, 콜레라, 천연두와 같은 유행병을 하나, 하나 이겨내는 과정이기도 하다. 에볼라 바이러스 역시 전 세계적인 협력에 의해 머지 않아 평정되리라 믿는다.

/송기동 사회2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_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